

12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마 20:20~28

찬송가 302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찬양 145장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오늘 배울



1. 예수님께서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임을 압니다.
2.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막 10:35~39)



을 이해하기

사람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남보다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담 이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섬기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사용함으로 자신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서로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자이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누가 크냐?’는 문제로 서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나라에서 각각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를 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 두 형제에 대해 분히 여겼습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부리는 자가 큰 자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이며 남의 종이 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등 종의 위치까지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후에는 자신의 목숨을 죄인을 위한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사람입니다.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 20:28)

Just as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 ransom for many (Mt 20:28)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②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인지 다음 성경을 찾아서 적어 봅시다(빌 2:6~11).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마가복음 10장 35~45절을 읽어 봅시다.

- 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무엇이며 요청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3

예수님은 ‘큰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4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5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타인을 섬기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막 10:43~45

의

눅 22:27

화

요 13:12~14

↑

롬 12:16

↓

롬 14:18

↓

빌 2:3~4

↓

히 6:10



삼위일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처음에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들을 설명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삼위일체를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位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롬 1:7, 엡 1:17) 성자도 하나님이시고(히 1:8, 딤후 2:13)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행 5:3~4). 그렇다면 세 분의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셋은 모두 영원하시며, 동시에 존재하십니다(시 90:2, 요 14:16~17, 엡 3:5). 셋은 또 한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만물을 지으신 근본 하나님이시나 자기의 모습을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빌 2:6~7).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배고프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를 눈에 보이는 사물의 현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예를 들면 고체인 얼음도, 액체인 물도, 기체인 수증기도 모두 물입니다. 물은 물인데 모양과 상태가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데 그 위격(位格)에 따라 하시는 일이 각각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즉 전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딤후 6:15)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롬 9:5)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19)

질문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만든 빛과 넷째 날 만든 빛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함께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위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6일 간의 창조 과정 중,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의 차이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창 1:3)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 빛은 해나 달이나 별에게서 나오는 것과 같은 물리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넷째 날 만든 광명들과 별은 무엇일까요?

넷째 날 태양이나 달이나 별을 창조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행성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미 있었습니다. 넷째 날은 이 행성들이 지구와 관련되는 정확한 위치에서 운행하고 땅을 비취도록 하심으로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동을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빛은 동일한 물리적 빛입니다.